박터지는 득점 잔치… 순위 경쟁 가열

KBO리그… 두산 베어스 NC 8-0으로 격파 5연승 질주
삼성은 하위 롯데에 8-17로 패… LG는 12-3 한화 완파

22일 열린 KBO리그 KIA와 kt의 경기에서 kt의 선수들이 공을 잡기위해 모이고 있다. 연합뉴스

가을 유전자(DNA)로 무장한 두산 베어스가 5연승으로 무섭게 질주했다.

두산은 22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NC 다이노스와 벌인 2021 신한은행 쏠(SOL) KBO리그 홈경기를 8-0으로 완승했다.

난전 양상인 중위권 싸움에서 4위로 치고 나간 두산은 승률 5할에서 3승을 더해 상위권 도약의 발판을 놓았다. NC는 4연패에 빠졌다.

두산만 만나면 약해지는 NC 선발 송명기는 4이닝 동안 7실점 하고 시즌 8패(7승)째를 당했다. 이번 시즌에만 두산에 4승을 헌납했다.

두산 선발 워커 로켓은 삼진 10개를 솎아내며 6이닝 무실점 역투로 9승(8패)째를 쌓았다.

지난해 프로야구 신인왕을 차지한 소형준(kt wiz)이 난타를 당해 1회도 못 채우고 마운드를 떠났다.

소형준은 22일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벌어진 KIA 타이거즈와의 방문 경기에 선발 등판해 ⅓이닝 동안 안타 5개와 볼넷 1개를 허용하고 7실점(5자책점) 했다.

소형준은 지난 5월 9일 NC 다이노스와의 경기에서 남긴 선발 최소 투구 이닝(2이닝 7실점) 기록을 넉 달 만에 다시 썼다.

1회 공방전이 이날 경기의 처음이자 끝이었다. 양 팀은 이후 점수를 추가하지 못했고, KIA가 7-2로 이겼다.

7이닝을 2실점(1자책점)으로 버틴 KIA 임기영이 편안하게 시즌 4승(7패)째를 따냈다.

SSG 랜더스가 9회말 1사에서 터진 김성현의 동점 솔로포에 힘입어 키움 히어로즈와 무승부를 기록했다.

SSG는 22일 인천 SSG 랜더스필드에서 열린 신한은행 2021 SOL 키움과 홈 경기에서 7-7로 비겼다. 키움은 6연패 탈출 기회를 놓쳤다.

8회까지 6-7로 끌려가던 SSG는 9회 1사에서 김성현이 상대 팀 김태훈을 상대로 초구를 공략해 극적인 동점 솔로 홈런을 터뜨렸다.

같은 날 대전에서 열린 한화 이글스와 LG 트윈스의 경기에서는 LG가 한화를 12-3으로 완파하며 2위 삼성 라이온스의 뒤를 바짝 추격했다.

삼성 라이온스는 하위권 롯데 자이언츠와의 경기에서 17-8로 패배하며 연승 행진을 멈췄다. 이로써 2위 경쟁은 더욱 치열하게 됐다. 연합뉴스

서귀포시 동계훈련 유치 '잰걸음'

축구·농구 스토브리그 재개
상해보험 가입 인센티브도

서귀포시가 위드 코로나에 발 빠르게 대응, 동계전지훈련 유치에 적극 나선다. 기존의 시설을 보강·확충하고, 축구와 농구에 이어 태권도를 추가하는 등 스토브리그 활성화를 통한 전지훈련팀을 유치해 국내 최고의 전지훈련지로서 다시 한 번 도약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방역태세를 유지하면서 코로나19 이전의 동계전지훈련 체제로 돌아가기 위해 종합운영 계획을 수립, 본격적인 전지훈련 유치 체제를 가동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시는 내년 1~2월 축구와 농구 등 기존 스토브리그 운영 재개 및 신규 태권도 스토브리그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전국크로스컨트리대회(1월), 춘계전국유소년축구대회(2월) 등 각종 스포츠대회의 정상 개최를 통해 전지훈련팀 유치를 준비하고 있다.

이에 시는 신규 체육시설 확충 및 각종 훈련시설 보수·보강을 통해 훈련여건을 개선하고 있으며, 전지훈련팀 지원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도 계획 중이다.

시는 올해 완공한 대정생활야구장과 서귀포혁신도시국민체육센터를 활용해 추가 전지훈련팀을 유치한다. 또 서귀포생활야구장 불펜 정비, 실내야구연습장 조명 보강, 시민축구장 펜스 보강 등을 연내 완료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시는 유휴 체육시설 활용 체육관 조성, 야간 훈련을 위한 서귀포생활야구장, 공천포전지훈련센터야구장, 효돈축구공원 조명시설 설치, 공천포전지훈련센터 다목적체육관의 대회 개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가변석 설치 등 지속적인 시설 개선을 위해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트레이닝센터를 포함한 모든 공공체육시설 무료 사용, 공영관광지 무료입장, 경기장 시설 상해보험 가입, 격려물품 전달 등 인센티브 관련 예산 추가 확보를 통해 모든 전지훈련 방문팀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어이쿠" 21일(현지시간) 영국 맨체스터 에티하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맨체스터 시티(이하 맨시티)와 위컴 원더러스의 잉글리시 리그 컵 3라운드 축구 경기에서 양팀 선수들이 볼 경합을 하고 있다. 이날 위컴은 초반부터 강렬한 기세를 보여주며 선제골을 넣었다. 하지만 맨시티가 집중력을 발휘해 5골을 몰아치며 5-1로 역전 승리를 가져왔다. 연합뉴스

제주Utd 무패 행진 끝
대구FC에 0-1로 패배

K리그 31R… 리그 8위 지켜

프로축구 대구FC가 제주Utd를 적지에서잡고 K리그1 3연승을 질주했다.

대구는 22일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1 2021 31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후반 38분 에드가의 결승 골에 힘입어 제주 유나이티드를 1-0으로 따돌렸다.

최근 리그 3연승을 포함해 5경기 무패(4승 1무) 행진을 이어간 대구는 승점 47을 쌓아 3위를 유지했다. 반면 무패 행진이 3경기(2승 1무)에서 멈춘 제주는 8위(승점 35)를 지켰다.

전반엔 대구가 8개, 제주가 7개의 슈팅을 주고받았으나 유효 슈팅은 양 팀이 하나씩만 기록할 정도로 정확도가 높지 못해 0의 균형이 이어졌다.

대구가 벤치에 뒀던 에드가를 후반 18분 오후성 대신 투입하자마자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으나 살리지 못했다.

페널티 지역 오른쪽에서 에드가가 투입한 패스를 츠바사가 달려들며 마무리해 골 그물을 흔들었으나 앞서 볼을 따내던 상황에서 에드가의 파울이 지적되며 득점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에드가는 후반 38분 직접 결승 골을 터뜨려 아쉬움을 털어냈다. 세징야가 올린 왼쪽 코너킥을 김진혁이 머리로 떨궈줬고, 에드가가 골대 앞에서 오른발로 밀어 넣었다. 연합뉴스

올해 전국체전 사상 초유 규모 축소

내달 8~14일 경북에서 열려
입시 성적 필요 고등부만 출전

다음 달 열리는 올해 전국체육대회(전국체전)에서 '고교궁사' 김제덕(17·경북일고)의 '파이팅 응원'은 들을 수 있지만, 안산(20·광주여대)의 '하트 세리머니'는 볼 수 없다.

올해 전국체전이 고등부만 출전하는 '축소 대회'로 치러지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100년 역사의 전국체전도 그 규모가 작아졌다.

이번 102회 전국체전은 8일부터 14일까지 7일간 진행되며, 장애인 체전 기간은 내달 20~25일 6일간이다.

경상북도 구미시 등 12개 시·군, 70개 경기장에서 47개 종목이 열린다.

전국체전은 국내에서 열리는 최대 규모의 종합 스포츠대회다. 개막일이 다가오면서 전국 시도체육회장협의회와 체육계 인사들은 전국체전 정상 개최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방역당국은 전국체전 정상 개최에 따른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경계했고,결국 대학·일반부 경기를 치르지 않고 입시 성적이 필요한 고등부 경기만 치르는 방식으로 전국체전 규모를 축소하기로 했다.

김제덕을 제외한 양궁 대표 선수들은 모두 대학·일반부 소속이어서 올해 전국체전에 출전할 수 없다.

펜싱 남자 사브르 단체 금메달리스트 오상욱(25·성남시청), 구본길(32), 김정환(38·이상 국민체육진흥공단), 후보선수 김준호(27·화성시청), 올림픽 한국 육상 트랙&필드 사상 최고인 4위에 오르며 스타 플레이어로 도약한 높이뛰기 우상혁(25·국군체육부대) 등 전국체전을 통해 해당 종목의 인기를 끌어올리려던 성인 대표 선수들의 바람도 물거품이 됐다.

도쿄올림픽 양궁 혼성 단체전과 남자 단체전에서 금맥을 캔 김제덕은 방송 출연등으로 인기가 더 상승했다. 김제덕은 전국체전에서 개인전과 단체전에 출전한다.

도쿄올림픽 수영 남자 자유형 100m 준결승에서 47초56의 아시아신기록 및 세계주니어신기록을 세우고 결승에서 5위를 차지한 '한국 수영의 희망' 황선우(18·서울체고)는 자유형 50m와 개인혼영 200m에 출전할 계획이다. 연합뉴스